

A Qualitative Study on the Faith and Life of a Christian Senior with a Doctoral Degree: Suggestions for Faith, Calling, and Senior Ministry

박사학위를 소지한 기독교인 시니어의 신앙과 삶에 관한
질적연구: 신앙, 부르심, 노인사역에 관한 제언

유은희(Eun Hee Yoo) · 김성원(Sung-Won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faith and life experiences of Christian seniors who hold a doctoral degree and to glean insights for the senior ministry of the church from what they propose based on their wisdom and own experience. To this end, seven participants were purposefully selected based on certain criteria and interviewed. Research findings were presented into three categories: faith, calling and life after retirement, and suggestions for the senior ministry of the church. For the research participants, the mature faith was fear of God and acknowledgement of Lordship of God, revealed through thoughts, words and actions and their agreement. The natural outcome is others may recognize such true godliness embodied in love of neighbors. The call to scholarship was a gift of God, which accompanies responsibilities,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immersed in meaningful work for the church and the next generation, following their calling even after retirement. The church's ministry for the elderly should start from recognizing resourcefulness of their life and wisdom for sanctification and growth of congregation members across all generations, aim for shaking souls of the elderly for God-pleasing life and eternal inheritance, and be supported by younger generations, online ministry and technology. To ensure that eternal goals, the fulfillment that comes from doing meaningful work, and passion to complete the race without stagnation in all aspects of piety, morality, and intelligence should become the characteristics of the lives of all elderly people, not just the research participants, such preparation should start before retirement by intervention and aid of the church.

Key Words

Christian faith, Senior, Doctoral degree, Calling, Life after retirement, Senior ministry

Received November 26, 2022 Revised December 28, 2022 Accepted December 29, 2022

Author : Eun Hee Yoo, Associate Professor, Chongshin Univeristy, eunhe.yoo@gmail.com

Corresponding Author : Sung-Won Kim, Associate Professor, Chongshin Univeristy, sungwon1331@gmail.com

박사학위를 소지한 기독교인 시니어의 신앙과 삶에 관한 질적연구: 신앙, 부르심, 노인사역에 관한 제언

A Qualitative Study on the Faith and Life of a Christian Senior with a Doctoral Degree: Suggestions for Faith, Calling, and Senior Ministry

유은희(Eun Hee Yoo)* · 김성원(Sung-Won Kim)**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기독교인 시니어의 신앙, 학문으로 부르심과 사명을 포함하는 삶의 경험, 그리고 그들의 지혜와 경험에 근거하여 제안하는 교회의 시니어 사역을 이해하고자 함이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목적을 위해 65세 이상이며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임 혹은 비전임으로 교수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시니어 사역에 관한 경험을 잘 말해줄 수 있는 7명의 연구참여자를 면담하였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성숙한 신앙은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경외의 모습과 죽음 이후의 영생을 소망하는 믿음이였다. 그들은 학문으로의 부르심과 기회를 은혜와 책임으로 받아들였고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으며 평생 몸에 밴 습관과 영원한 목표인 텔로스가 있었다. 노인을 위한 사역에 관하여 노인을 지혜와 삶이라는 자원을 가진 자로 인식하는 것과 상시로 긴박하게 진행되는 시니어 사역을 제안하였다. 후자와 관련하여 영혼을 깨우는 사역, 주중에도 지속되는 사역, 비대면·온라인 사역의 활성화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결론 및 제언 : 영원한 목표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함으로 오는 충족감, 경건과 도덕성과 지성적 측면에서 정체되지 않고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치려는 열정으로 채워진 삶이 연구참여자를 넘어선 모든 노인의 삶의 성격이 될 수 있도록 은퇴 이후 삶의 준비와 이를 위한 교회의 교육적 사역은 은퇴 이전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

기독교 신앙, 시니어(노인), 박사학위, 소명, 은퇴 이후의 삶, 시니어 사역

□ 2022년 11월 26일 접수, 2022년 12월 28일 심사완료, 2022년 12월 29일 게재확정

* 주 저 자 :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 eunhe.eyoo@gmail.com

** 교신저자 : 총신대학교 교직과 교수, sungwon1331@gmail.com

I. 들어가는 말

‘공부의, 공부에 의한, 공부를 위한 대한민국’은 한국과 전 세계의 학구열을 분석한 도서 「공부하는 인간」의 1장의 제목이다(KBS 공부하는 인간 제작팀, 2013, 18). 도서의 제목에서 나타난 교육열은 시대와 공간의 성격에 따라 여러 교육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교육열은 한국 교육을 이해하는 인식의 나침판이라고 간주된다(강창동, 2008). 우리나라는 유난히 학구열이 높고 이것이 경쟁 동기가 되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지나친 학력 경쟁으로 인해 학력의 실제 가치보다 학벌의 중요성만을 부각시켜 현대판 신분제도가 생산되는 문제점이 야기되었다(남인숙, 2011).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스란히 반영하듯이 학력 조작 사건으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신정아 사건부터 많은 연예인들의 학력 조작 및 표절 사건, 전·현직 정치인의 자녀의 입시 비리와 가족의 학력 조작 의혹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학력에 관한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대한민국 교육의 민낯은 드라마를 통해서 조명되기도 하였는데, 〈SKY 캐슬〉에서는 ‘자기 욕망 실현을 위한 교육열’, ‘공고한 로열패밀리 형성을 위한 교육열’, ‘캐슬’로 표상된 욕망을 비추는 거울로써 교육열’이 다루어졌다(남미자·배정현·오수경,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력이나 교육열의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중년 여성의 학력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과정을 다루는 연구에서 학력은 ‘삶의 힘’이고 ‘진정한 자기됨’의 실현이라고 밝혀진 바가 있다(임선경·김명찬, 2021). 여섯 자녀가 모두 예일대·하버드대학 출신이고 가족 전체의 박사학위가 11개로 유명한 前 예일대 교수 전해성 박사와 가족은 1988년 미국 교육부에서 ‘동양계 미국인 가정교육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조승미, 2009년 11월 13일). 그의 저서인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 「엘리트보다는 사람이 되어라」는 부모교육의 교과서처럼 간주되기도 하였다.

교육을 통한 긍정적인 영향력은 전해성 박사와 같은 개인을 넘어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언약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섬기는 제자로 양육하는 샘물학교(샘물학교 홈페이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잠언 1장 7절)’를 교육관으로 삼아 공부해서 남에게 주도록 가르치는 거창고등학교(거창고등학교 교육목표),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슬로건 하에 사랑, 겸손, 봉사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직한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비전을 가진 한동대학교(한동대학교 비전선언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의 목표와 교육의 공공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널리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이타주의’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홍익인간’이라는 교육이념의 실현에는 관심이 부족하고 머리만 비대한 로봇을 생산하기에 바쁘다는 평가를 받는다(남인숙, 2011).

본 연구에서는 산업화 세대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고등교육기관에 몸담을 기회를 얻었던 기독교인 시니어의 신앙과 삶을 이해하고자 했다. 신앙과 삶의 이야기 안에 학문(scholarship)으로의 부르심과 사명, 은퇴 이후의 삶과 교회의 시니어 사역에 관한 제언이 포함된다.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는 신앙의 목표와 소명, 직종에 따른 은퇴 이후의 삶의 경험과 시니어 사역에 관한 풍성한 통찰을 제시해 줄 것이다(박군석, 2009). 그 통찰은 신앙발달과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와 구현된 삶의 모습에 대해 고민하는 기독교교육자와 시니어 사역자 뿐 아니라, 학문의 세계에 머물다가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 다른 이들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노년기 삶의 목표와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는 시니어들, 그리고 시니어를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와 의의에 기초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연구참여자들의 신앙의 성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연구참여자들은 학문으로 부르심과 사명을 포함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연구문제 3. 연구참여자들의 시니어 사역에 대한 제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우리나라의 2021년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이며,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생존자의 기대여명은 21.3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보다 남자는 0.8년, 여자는 1.8년이 더 높게 나왔다(통계청, 2021). 이와 같이 고령자가 많아지는 시점에 노인에 관한 관심과 지원은 시대적, 사회적 과업이 되고 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는 체력과 건강의 약화, 수입 감소, 배우자와 친구 등 주변인들의 죽음을 경험한다(김철영, 2011, 39; 박아청, 2010, 241). 심리적으로는 자녀 세대와의 단절로 인한 소외감, 주변인들의 사망으로 인한 사별의 고통, 외로움과 절망으로 인한 우울증, 육체의 노쇠에 대한 불안과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다(김수영, 2021). 핵가족화,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등의 사회 변화에 따라 노인의 가치와 지위가 낮아지는 현상도 발생한다. 전통사회에서 노인은 경험과 연륜만으로도 공경의 대상이었으나,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노인 부양의식이 약화되고 노인은 더 이상 경험과 기능의 전수자가 아닌 최신 기술 습득 및 정보 활용에서 뒤떨어지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이은성, 2

016).

성경은 노인의 경험과 현실을 뛰어넘는 관점을 제시하는데 노화를 창조질서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는 과정으로, 노년기를 쇠퇴나 상실의 시기가 아닌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는 시기이며 축복으로 묘사한다(김성호, 2019). 성경적 인간론에 기초한 노인에 대한 신학적 이해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몸,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다(김철영, 2011, 50-51). 특별히 시니어에 관한 기독교 연구를 하는 전문가들은 시니어를 지혜의 보고로 묘사하면서 다음 세대에겐 신앙과 삶의 지혜를 전수하는 역할을 강조하고(김장은, 2013, 223; 김철영, 2011, 45-46; 이정관, 2014; 조은하, 2019; Fillinger, 1993) 자녀나 젊은 세대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철영, 2011, 48; Fillinger, 1993). 따라서 이 시기를 느려지는 시기라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배우고 섬기고 계획하며 이전에 살았던 것보다 더욱 활기차고 흥분되는 삶을 사는 기회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Gallagher, 2006, 11).

기독교 신앙을 가진 노인 15명을 면담하여 노인 신앙의 특징 및 의미를 발견한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고난을 은혜로 수용하기, 예수 향기가 나는 삶과 성품, 성경적 세계관의 소유, 죄에 대한 민감성, 경건 생활, 말씀의 존중, 전도의 열정이 노인 신앙의 특징이라고 보았다(김성원, 2022). 기독교 신앙은 노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기여를 한다. 신앙은 인생의 고립과 상실, 실패를 경험하였고 죽음 앞둔 노인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능한다(김장은, 2013, 76). 노년기 영성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삶을 풍요롭게 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으로(김장은, 2013, 76; 설은주, 2005, 308), 노년기 신앙은 하나의 성장 과정으로서 완숙을 향해 가는 ‘영적 여정’이다(김장은, 2013, 76). 신앙을 통해 노인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 가운데 가치와 존엄성을 갖고 살아감을 인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용서 받은 자로서의 존재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아울러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감내할 힘을 받는 등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을 받는다(김수영, 2021). 신앙은 삶의 의미 발견, 윤리와 정의에 대한 관심, 물질 의존적인 태도의 지양, 그리고 삶의 목적 변화와 연결된다(Hay & Nye, 2011, 33-34). 전술한 바와 같이 학자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강조하는데(김장은, 2013, 76; 설은주, 2005, 308; Hay & Nye, 2011, 33-34), 특별히 신앙은 소명의 발견에 영향을 미친다(Hay & Nye, 2011, 33-34; Willimon, 2020, 73).

개인의 소명을 이루는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나, 그중 학문의 준비와 깊이는 직업의 결정과 수입, 삶의 만족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학문은 삶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이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은 현실의 삶을 살면서 물질적 부에 집착하기 쉬운데 학문을 통해 이러한 성향을 자제할 수 있다(이광호, 2000). 기독교인의 경우,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삶의 적용을 통해 기독교 문화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조무성, 1989). 보다 실제적으로 노인의 성별, 연령, 직업 유무, 동거 형태에 따라서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최종학력, 용돈 수준,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졸과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집단에서 ‘현실향유주의 자기개발형’ 분포도가 높았고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집단에서 ‘현실지향주의 자기중심형’ 분포도는 낮게 나타났다(김삼숙, 2010). 학력, 소득,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강동훈, 2020), 학력에 따라 노인의 종교활동과 신앙 태도, 자아통합감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우울에서는 차이가 있었고 학력이 높은 집단의 우울감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결과(강성봉·조성숙, 2013)는 학력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수행된 연구에서 대학을 졸업한 시니어 남성 연구참여자들이 컴퓨터, 휴대폰, AI, 메타버스에 관심을 보이며 이와 같은 내용에 관한 교육을 요청한 바 있다는 연구결과(김성원, 2022)는 학력의 영향이 가치관과 관심사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노인 수의 증가로 인한 중요성의 부각, 노인 신앙의 특징과 영향, 학력의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기독교인 시니어와의 면담을 통하여 그들의 삶과 신앙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주제와 연구 대상의 독특함으로 인해 국내 선행연구가 없는 특수한 분야로 전문성을 가진 기독교인 노인을 이해하고 사역의 방향을 제안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해석적 질적연구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이해하고자 하는 현상이나 대상, 접근 방법과 목적에 따라서 문화기술지, 근거이론, 내러티브 탐구 등 보다 구체화된 연구방법론을 취할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는 척도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의 성격으로 이루어졌기에 Merriam과 Grenier가 제시한 일반적 혹은 해석적 질적연구 접근을 취했다(2019, 34-35). 모든 질적연구는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며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관심이 있으며, 그중 기본적인 해석적 연구는 특히 그러한 의미를 발견하고 해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 면에서 본 연구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기독교인 시니어들이 그들의 신앙과 삶을 어떻게 말하고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이해함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자는 지난 2021년 노인 신앙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사전 단계로 탐색적 질적연구를 실시하면서 다수의 시니어를 면담하였는데, 의도적인 표본을 추출하고자 하였음에도 연구자

의 직업적 요인으로 인해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교수직을 수행했던 연구참여자가 다수 포함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양적연구와 달리 질적연구의 표본은 모집단 구성원의 비율을 정확히 대표할 필요는 없으나, 특정 집단이 다수가 된 표본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결과를 도출한다면 노년기 신앙과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담아내고 해석함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연구참여자를 추가 선정하고 박사학위를 가진 연구참여자들의 신앙과 삶을 조명할 수 있는 인터뷰 질문을 추가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런 면에서 본 연구 설계는 초기 설계에 의존하기보다는 생성적인(emerging) 성격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온 자들 중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전임교수, 강사 혹은 겸임교수로 고등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일하다 은퇴한 독특한 그룹에 속한 시니어들의 삶의 체험은 기독교인의 인생 여정 가운데 신앙과 부르심 그리고 일의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맥락적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의 연령은 68세에서 79세로 다양하였으며, 유아교육, 경영학, 정치철학의 일반 학문을 전공한 참여자도 있으나 기독교교육이나 신학 전공자가 많았다. 노년기 신앙의 목표와 기독교 노인교육의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적합한 표본이나, 일반 학문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시니어들의 삶과 소명에 관한 데이터 수집에는 한계를 가진다. 익명성을 위해 연구참여자에 관한 대략의 정보만을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정보

구분	성별	출생년도/연령	직분	최종학위 전공	(전)직업
연구참여자 AM	남	1943년/79세	목사	선교학(해외)	선교사, 교수
연구참여자 CM	남	1944년/78세	목사	신학(해외)	교수
연구참여자 TF	여	1946년/76세	권사	유아교육학(국내)	교수
연구참여자 BM	남	1950년/72세	목사	경영학(해외), 신학(국내)	기업인, 교수, 목사
연구참여자 RM	남	1953년/69세	집사	정치철학(해외)	교수(시간강사)
연구참여자 PF	여	1953년/69세	목사	기독교교육학(해외)	교수
연구참여자 SM	남	1954년/68세	목사	기독교교육학(해외)	교수(겸임), 목사

2.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는 반구조적인 질문지를 사용한 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박사학위를 소지한 기독교인의 신앙, 소명과 삶에 관한 이야기와 교회의 시니어 사역에 관한 제언을 얻기 위해 사용한 인터뷰 질문은 다양했다. 신앙을 갖게 된 계기와 인생 여정에 관한 편안한 질문으로 연구참여자의 신앙과 삶의 배경을 이해하고자 했다. 자신이 만났던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 대한 묘사를 통해 성숙한 신앙의 암묵적인 측면을 들여다보고자 했다. 가장 감사하고 힘들었던 시기와 미래에 대한 소망에 관한 질문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지나온 생애에 대한 해석, 하나님에 대한 인식, 오늘 경험하고 있는 영적 안녕, 행복 혹은 삶의 만족도를 이해하고자 했다. 소명과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듣고자 학문의 기회와 소명의 관계, 교수로서 삶의 비유, 동년배와 비교하여 그들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들었다. 마지막으로 체험을 바탕으로 교회가 시니어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관한 질문을 포함시켰다.

면담 시기는 2021년 9월 29일부터 2022년 10월 2일까지였다. 코로나의 위험을 염려한 연구참여자 RM과는 줌(zoom)을 활용한 화상 면담을, 나머지 연구참여자와는 대면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전에 연구 제목, 목적, 방법, 연구 참여의 이점 및 불이익,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보장, 자발적 참여 및 참여 철회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연구참여자에게 제시하여 동의를 구하였다. 면담시간은 1시간 2분에서 2시간 45분까지로, 연구참여자 CM, TF, RM, PF와는 2회, 나머지 연구참여자와는 1회 면담하였고 면담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확인을 받았다.

질적연구에서 연구자는 주된 도구이며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참여자들이 말한 의미를 매개한다(Bogdan & Bilen, 2006; Merriam & Grenier, 2019). 전사된 자료를 여러 번에 걸쳐 읽으며 분석하되,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반복되는 패턴과 주제들과 예상외의 발견이 있는지 주목하였고 해석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통찰을 메모로 기록하였다. 코딩 시 줄 단위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원자료에서 출발하여 기존 전제나 이론에 근거하기보다 내부자의 관점에서 연구참여자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in-vivo code), 최대한 살려서 하위 범주로부터 상위 범주로 분류하는 에믹(emic) 코딩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분석은 귀납적으로 이루어졌고, 분석을 위해 Nvivo 12 Plus가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보고 시에 연구참여자의 목소리가 잘 드러나도록 또한 독자들이 연구결과를 원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풍성한 맥락 안에서 두터운 기술을 시도하였다.

3. 연구의 엄격성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 노력이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주제의 민감성으로

연구자들은 연구주제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관한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 관련한 책을 읽고 관련 연구를 수행해 왔다. 또한 심층면접이라고 하기에는 면담 회수와 시간이 다소 짧았고 자료수집의 다원성이 확보되지 못하였으나, 연구참여자와 지속해온 오랜 관계(prolonged engagement) 및 신뢰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의 세계와 삶에 대한 이해의 타당성을 높이고 두 명의 연구자의 협업을 통해 이를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의 코딩 작업 후 드러난 범주와 구성된 의미를 포함한 분석결과와 기술내용을 연구참여자들에게 보내 연구결과 및 해석을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참여자 확인(member check)을 요청하였다. 연구설계와 관련된 조언은 수정할 수 없었으나, 연구참여자들의 자문을 받아 직접 인용된 연구참여자들의 표현 및 해석에 관한 기술을 보다 명료하게 수정하고 내러티브의 구조를 재검토하여 보완하였다.

IV.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성숙한 신앙에 관한 성찰, 특권과 책임으로서의 학문의 기회와 은퇴 이후에도 지속되는 소명, 교회의 시니어 사역으로 범주화되었다.

1. 성숙한 신앙에 관한 성찰 및 신앙 경험

연구참여자들의 신앙과 삶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연령은 68세(1954년 출생)세에서 79세(1943년 출생) 사이로 베이비붐 이전의 '산업화 세대'라 할 수 있다. 해방과 한국 전쟁을 경험했던 이들도 있었고(AM, CM, TF), '산업화 세대'의 끝자락에 태어나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BM, PF, SM, RM). 그들 모두 형성기를 우리나라가 경제적 급성장과 기독교 부흥을 경험하던 시기에 보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배경은 다양했다. 이들 중 두 명은 가족이 북에서 내려왔고 조부모 세대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일제와 공산당의 탄압 속에서 순교를 당한 가족 구성원을 가진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다.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 예수를 믿게 된 연구참여자들은 마을의 교회 종소리에 이끌려 교회에 가기도 했고, 어머니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으며, 거의 20대가 되어서야 예수를 믿게 된 성인 회심자도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믿지 않은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핍박을 받거나 군대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매를 맞았던 경험, 그리고 미션스쿨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한 연구참여자는 미션스쿨에서 만났던 훌륭한 교사들을 언급하면서 근대 한국교회사에서 익히 알려진 목회자를 거명하기도 했다. 더불어 그가 다녔던 미션스쿨에서도 여느 학교와 같이 등록금과

육성회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와 차별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신앙의 회의를 경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헌신적이고 다양한 은사를 가졌고 찬양과 설교에 탁월했던 주일학교 사역자를 떠올리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는 개인사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훑듯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과 같았다.

1)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경외의 참된 믿음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하고 인정하는 성숙한 신앙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여러 모양으로 묘사되어 일반화하기 어려우나 참된 경건은 삶으로 표출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지각되는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취질 뿐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 겸소한 삶, 믿음과 행위의 일치로 드러났다. 연구참여자 PF는 대학시절의 교수님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진짜 그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시더라구요. 내가 볼 때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드린다고는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 하나님을 정말 철석같이 믿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 수업 시간이나 개인적인 얘기를 할 때도 보여요.

교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함이 그분의 수업과 대화 속에 드러나 '보인다'는 표현을 썼다. 참된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비추이며 보인다. RM은 어린 시절 장로님이셨던 큰할아버지를 떠올리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대표기도를 하면 굉장히 웅변을 하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큰할아버님은 그냥 그 옆에 계신 우리 가족, 아버지 또는 뭐 할아버지하고 대화하듯이 기도를 하셨어요”라고 말하며, “실천 자체가 그냥 생활화되어 있으신 분으로 여겨졌고,” “그 자연스러움이 참 너무 좋았지요”라고 말했다. SM의 경우에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 왕의 실존, 현존하심에 대한 인정, 의존, 반성. 이런 것이 그분의 삶 속에서 인생의 실존 속에서 늘 드러나고”, “반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했다.

참된 믿음은 자기 부인과 이웃 사랑으로 드러난다. CM은 신앙의 사람은 “참 눈물을 흘리고 희생을” 하며, “자기보다도 남을 위해서 뭔가 하려는 겸손”을 가진 사람이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참으로 충성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했다. 반면 “예수 믿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 너무 많고, 미워하고 험뜯고 정말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도 많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너무 좋은 사람이 많아”라며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안타까움도 표현하였다. 연구참여자 TF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어릴 적 교감선생님을 떠올렸다. “그분은 진짜 예수님 같아. 말과 행동과 생각이 똑같아”라고

했다. 연구참여자 BM 역시도 마더 테레사와 같이, “그 무던한 거짓이 없는 몸에 배어 있는 신앙이 제일 부러워요. 자기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있잖아요”라고 말했다.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짓이 없는 몸에 배어 있는 신앙’과 ‘실천’이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참여자들이 말하는 참된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경건의 형식이나 종교성과는 구별되는 것이었다. SM은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종교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종교성은 사실 불교도나 무슬림들이 훨씬 더 충성스러워요”라고 말했다. RM은 “도덕적으로 계속적으로 상당히 훌륭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성숙한 신앙은 “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인간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확고한 믿음이라 정의했다. CM 또한 “한국에서 보는 신앙의 기준은 외적인 것,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많이 드리는 것”일 수 있지만, 종교 활동의 외적인 기준보다 신앙이 체화된 인격을 더 강조했다.

연구참여자들이 묘사하는 성숙한 신앙과 실천 뒤에는 말씀의 뿌리가 있었다. 하나님 경외함을 학생들에게 교훈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선생님을 떠올리며 PF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인생의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체험한 그 말씀이 교훈으로 나오더라고요”라고 말했다. 다른 연구참여자들도, “말씀의 깨달음이, 말씀대로의 깨달음,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깨달음”(BM)이 가장 중요하며, “말씀이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CM), “말씀과 성령님의 지도와 지배를 받으며 늘 말씀과 성령님을 모시고 앞세우고 따라가는” 삶(AM) 이 크리스천의 삶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서 전도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은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이었다. 연구참여자 BM은 최근 자신이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에 변화가 생긴 듯,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요새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때 저는 그 사람의 직분을 떠나서 전도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있는가”를 본다고 했다. 다른 연구참여자들에게도 가족과 후손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감사의 제목이거나 기도의 제목이었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반복되는 주제였다. TF는 “내가 지금 태신자로 아침마다 기도하는 가족이 많아요”라고 말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AM은 자신의 자녀들과 조카들까지 모두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전도와 기독교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일, 즉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배타성과 구령의 열정을 성숙한 신앙의 기준으로 보는 관점은 Fowler(1981)가 가장 높은 신앙발달 단계로 묘사한 보편적인 신앙의 성격과는 차이가 있다.

2)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의 발견으로 인한 감사와 자족

연구참여자들에게 나타난 신앙의 가장 두드러진 성격이자 분위기는 지나온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 내용에는 구원의 은총과 목회자, 선교사, 혹은 교사로 불러주신 소명에 대한 감사, 박사과정까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과 어려움 속에서도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심에 대한 감사, 건강의 위기와 허무, 우울, 낙심과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었다. 특히 과거의 고난과 결핍에 대한 해석에 근거한 역설적 혹은 역행적인 감사와 자족감도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연구참여자 RM은 자신의 장애에 관하여 이전에는 자신의 신체적인 장애가 극도로 자신의 “자유를 박탈”한다고 생각해 원망도 많이 했으나, 그 장애로 인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책을 읽고 자신을 반성하는 내면을 닦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 때 데모를 할 때에도 친구들이 “너 그러다가 잡혀서 맞으면 큰일 난다”라며 리더를 못하게 막아 위험에서 배제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애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은혜임을 알고 오히려 감사한다고 했다. 더 나아가서 그의 경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로였다. 신체적 장애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과 전임교수가 되지 못하고 시간강사로 머물렀던 경력, 이 모든 요소들이 그의 인생을 “경계인으로서의 삶”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삶이 자신에게 준 유익을 아래와 같이 말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제 삶의 여정에서 주어진 경계인으로서의 삶 때문에 현재에 별로 집착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태에 대해서 세속적인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을 좀 비판적으로 보는 자세가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한 진리의 길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 또 '영생에 대한 소망을 미래에는 어떻게 실현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삶에 대해서 우울해지거나 또는 과거의 나의 어떤 업적에 대해서 긍지를 갖는다는 그런 생각은 없고 항상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저의 삶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곧 그는 자신의 장애와 경계인으로서의 삶, 즉 자신의 한계, 결핍, 고난을 더 깊은 속박과 죄와 허무로부터의 하나님이 주신 해방과 자유함과 구원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시간강사로 은퇴를 한 것 역시도 “실제 생활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기에 이미 은퇴인으로 살았다고” 볼 수 있어서, 은퇴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과 달리 힘겹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 이와 같은 내러티브는 모든 연구참여자들에게서 드러난다. AM은 교사자격증을 받지 못했을 때, CM은 원하던 미국이 아니라 독일로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을 때 큰 아쉬움을 경험했으나,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발견했다.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면서 ‘여기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BM 역시도, “너무 많아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

심, 함께하심을 정말 체험하고 알면서 살고 있고, 인생의 변환점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느낀다”고 고백한다. PF는 삶의 목표와 방향성 상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방황할 때 발견한 소명, 그 길에 들어서며 느꼈던 경외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신앙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한 긍정뿐 아니라 ‘역설적’ 감사제목도 있다. PF는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제목을 자신의 죄성을 발견한 것이라 언급했다.

참 이게 유학생활 중에 저의 본모습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 기간이 극한 상황이었어요. [...]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여튼 내가 이런 죄성이 있었나? 한국에서처럼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절대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을 그런 경험이. 아 내가 정말 이렇게 나쁜 지독한 죄인이구나.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 덩어리구나. [...] 구원 받는 거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예전에 다 했었지.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 [...] 그때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지금은 진정한 내 모습을 발견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역설적이지만 이거는 정말 행운이에요.

그 외에도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케 된 자존감, 옳고 그른 기준의 불확실함과 가치관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 영원한 목표 소유(SM), 구원받음(CM, SM), 허무에서의 해방(RM), 삶의 새로운 목표와 소명 발견(CM, SM, PF), 담대함과 용기(CM, SM), 기도응답(CM), 화평한 가족(PF, TF), 주신 은사와 기회(AM, BM, CM, TF), 순탄했던 인생(BM), 죽음과 위험에서 건지심(AM, SM, RM) 등 다양한 감사의 제목과 함께 그들의 인생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역풍, 곧 실패와 결핍, 자신의 뜻이 좌절되었던 경험, 경계인 혹은 주변인과 같았던 삶, 그리고 자신의 죄성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에 대해서도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닫고 의미를 발견하고 감사와 자족감을 표현했다.

3) 죽음 이후 영원한 삶에 대한 전망과 거룩한 긴장감

연구참여자들이 본 신앙과 삶의 전망에는 죽음과 심판, 그 이후의 영원한 삶이 있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일시적이거나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하고 더 영화로우며, 이 땅에서 삶에 의해서 천국에서의 삶의 결정된다는 믿음이 있었다. 이러한 신앙은 주변의 다른 노인들과 차이점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RM은 예수 믿지 않는 자신의 친구들은 “삶에 대한 집착과 세속적인 욕망에 매여”있거나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고향을 잃은 사람들”과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은 성향상 회의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마련하신 천국이 내 집이고 내 고향”이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에 소망이 있다고 했다. 시니어 사역을 20년 가까이 한 연구참여자 BM은 노인들이 가진 건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건 정말 선대의 거짓말이라고. ‘다 살았으니 죽어야지’ 그렇게 말하지만 굉장히 삶에 의욕이 많아요. 내가 사역하면서 느낀 건데요 그거는 마귀들이 그들의 연약함을 시험하는 것 같아. ‘정말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 미련을 가지고 저렇게까지 안타까워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삶에 대한 애착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대부분의 노인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느꼈지만, 신앙을 가진 연구참여자들은 죽음의 두려움과 삶에 대한 집착으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청산할 날이 온다는 인식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에 그들의 삶에는 긴장이 있었다. 건강문제로 수술대에 오르기 전, 연구참여자 SM은 “오늘 밤이라도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게 분명”하니 건강과 죽음에 대한 염려는 없었으나, 혹시라도 “이번에 다시 살아나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슬픔이 되고 내 아내에게 수치가 되고 또 나를 믿어주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실족시키는 일”을 하게 될 거라면, 차라리 깨어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다고 한다. 이는 인간이 모두 약하고 아무도 자신의 삶이 마지막까지 온전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 했다. 그에게는 나이듦, 곧 노화의 의미도 마찬가지였다. 늙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아름다운” 것이나, 정체, 곧 “정신적, 영적, 인격적” 정체가 스스로 가장 경계하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정체, 정체되는 것. 나이 들어가는 거야 어떡하겠어요. 늙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늙아진다는 건 추한 거예요. [...] 6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그런 거 있죠. 외경심, 어린아이 같은 외경심. 이렇게 감동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잃어버리고 아이들이 갖는 그 외경심을 잃어버릴까봐 두렵죠. 두 번째로는 투명성. 아이들이 얼마나 투명해요. 그리고 도전, 도전 의식. 얼마나 이 땅에 살아 있다면 이 살아 있는 날의 가치가 귀한데 그날을 이렇게 죽기를 기다리는데 사용하면 안 되지. 죽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는데 쓰는 것도 참 웃기는 일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할 일이 뭘까 이런 도전을 접을까 봐. [...] 그것이 제일 마음에 많이 쓰입니다.

죽음을 기다리거나 죽음과 노화를 거슬러 살고자 애쓰기보다는 마지막까지 퇴보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는 간절함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AM도 마찬가지였다.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지구에서의 80년 90년 평생은 너무 짧고 별거 아니”지만 “중요”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이 삶을 통해서 천국에서의 삶이 영원히 결정되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그는 성경 말씀과 같이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고자 했고, “날마다 영력, 영성도 함양하고 체력도 배양하고 실력도 향상시켜서 쓰임 받아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시니어 선교사인 그에게 은퇴란 개념은 없었다. “날마다 계속적으로 쓰임 받는 거, 쓰임 받다 보면 은퇴는 없는 거죠.”

2. 특권과 책임으로서의 학문의 기회와 은퇴 이후에도 지속되는 소명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평생 부유하고 안정된 가정에서 성장한 이들도 있고 매우 가난한 성장기와 평생 경제적으로는 녹록치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산업화 세대 중에 박사학위를 소유한 소수의 사람들 중에 속한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7명 중 6명은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그 시기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특별한 기회를 얻었던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그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특권이었고 하나님 앞과 교회와 사회를 위한 책임감을 부여했다.

1) 성취 아닌 수단으로서의 학위와 사회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책임감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학위 취득 후 자신의 분야에서 교수, 목사, 전문인으로 활발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연구참여자 TF는 자신의 교수로서의 삶을 돌아보며 “교수 기간은 너무나 바빴다. 숨 쉴 시간도 없을 정도로”라고 말했다. 학위가 있었기에 교수직을 수행하며 학회를 구성하고 책을 집필하며 전국교회에서 강의를 하는 등 자신이 뜻한 바를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고 했다. 선교지에서 초·중·고와 신학대학원을 세워 교육사역을 했던 연구참여자 AM은 박사학위는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도” “requirement pass” 곧 어떤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전진할 수 있게 하는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패스와 같았다고 표현했다.

학위는 중요했지만, 연구참여자들에게 박사학위 자체가 사명은 아니었다고 했다. 배움 혹은 학문으로의 부르심은 이미 주어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하도록 구비되기 위한 목적이었다. 연구참여자 SM은 어떤 사람들은 학위를 받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도 하지만, 자신은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한계, 무지, 혼란, 준비되지 못했다는 부족함”으로 인해 공부를 하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유학길에 올랐다고 했다. CM은 학위는 학문적 성취이고 학문의 시작이지만 소명은 아니며, 소명을 더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학위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이 아니었기에 책임감을 느꼈다. SM은 유학생생활 후 자신의 삶에는 “책임감”이 따랐다고 했다. “한국의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권을 내가 받았어요. 말하자면 노블리스 오블리제죠. 나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공부시킬 때에는 반드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느꼈고, 그 선물을 “남을 세우는” 일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늦게 학위를 마쳐 교수로 일한 기간이 길지 않았던 연구참여자 PF는 자신의 소원을 오랫동안 준비시켜주신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도록 “은사를 불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 말했다.

고생은 많이 했으나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내재해 있는 은사를 더 발견하고 싶은 거죠. 지금 여성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 일은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준비시키셨는데 내가 짧게 밖에 사용을 못 했더라고. 그게 아깝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2) 은퇴 이후에도 지속되는 사역

일곱 명의 연구참여자는 모두 공식적으로는 교수직에서 은퇴한 상태이나, 부분적으로 교수직을 수행하고 있거나 목회를 겸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목회자로서 은퇴할 연령에는 이르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의 평생의 삶이 그러했듯이 그들은 노년기에도 여전히 여가생활이 아닌 사회적으로 유익이 되고 다음 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은퇴 이전에 그들이 하던 일들, 곧 연구, 강의, 저술 등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거나, 연구소, 교회와 같은 자발적인 조직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CM은 평생에 하던 연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주석 집필을 지속하고 있었고, RM은 은퇴 후 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학생과 만나 “역멘토링”을 받기도 하고 종종 기독교학생회나 탈북민들 혹은 학생들에게 강연을 한다고 했다. 최근 그의 관심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삶의 도구인 “과학과 공학이 거의 우상화”되는 시대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영성과 인간학을 연구하는 것이고, 철학과 과학, 정치학 등 자신의 다양한 전공지식을 성경의 주제와 연결시켜 성찰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BM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일과 교회사역을 지속하고 있었고, 증년에 취득한 신학학위와 첫 번째 전공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회 개척자들을 조언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TF는 선교지 여러 나라의 교사 양성을 위해 가르치는 일과 교회에서 필요한 사역을 개척하고 사역자들을 조언하며 봉사의 일을 병행하고 있었다. PF는 은퇴 이전부터 해왔던 여성 박사들과 여성 리더십에 관한 연구모임을 지속하며 연구결과를 출판하고 때때로 성악과 학생들에게 불어를 가르치고, 불어권 선교사들을 위해 불·한 대조 성경을 공동 편집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은퇴 전에 하던 일과 연속성 상에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소 그 성격이 달랐다. 그들은 사례가 없어도, 명령 혹은 요구하는 이가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자신이 헌신하고 싶은 그 일에 헌신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연구참여자 PF는 연구소에서 여성 리더십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출판하지만 사례와 상관없이 자원해서 하는 일이다. 주님이 주셨던 배움의 기회와 발전시킬 수 있었던 전문성이 하나님과 사회에 진 빛과 같아서 “시키지 않은 일들도” 하는 것이다. TF는 교회 주일학교 사역과 시니어 대학 운영에 깊이 관여하며 새로운 사역을 개척하기도 했다. 평생 교수를 하면서 갖게 된 관점과 조직력 등을 활용하여 사역자들을 지원하고 돕는다. 그의 지위는 고문일 뿐이나 상관이 없으며, “그거 지위는 아무 소용이 없어”라고 말했다. 이러한 삶은 동년배의 친구들의 삶과 비교할 때 차이가 났다.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면 뭘 먹어야 병에 안 걸리고 또 연금 어떻게 관리해야 사는지 대화하고 주로 건강 문제 그게 제일 큰 문제고, 그리고 탄식이 많아요.” 연구참여자 SM의 말이다. 그러나 자신은 은퇴 이후에 하고 싶은 일이 많아 “지금도 가슴이 설레요”라고 말한다.

3) 몸에 밴 습관과 “영원한 목표”

상기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일에 하며 충족감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의 성격은 대부분 은퇴 이후 새롭게 생긴 관심분야에서 출발하기보다는 이전부터 관심이 있었거나 관여하던 일이었다. 그들의 일은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닌 사회적인 차원의 일, 자신의 만족을 넘어 더 넓은 공동체 혹은 다음 세대에 기여하는 일의 성격을 가졌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가? 연구참여자들의 은퇴 이후의 삶의 양식은 한편으로는 그들의 평생의 습관 혹은 아비투스와의 관련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소명을 직업과 지위에서 은퇴함으로 끝나는 부르심이 아니라 영원한 목표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연구참여자 PF의 말이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허투루 살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시간 낭비도 하면서 살지만. 그 외에 정신적인 어떤 추구를 하지 않는 평범한 삶은 좀 낭비 같고 허송세월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나머지 인생을 더 알차게 살고 싶어서 지금까지 전문인으로 키워주신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은 일들도 찾아서 하고 그러는 거죠.

평생 자신을 절제하며 시간을 아껴서 살아가던 습관과 읽고 연구하고 글을 쓰던 습관이 은퇴 이후에도 유사한 생활양식과 지적인 과업 수행을 지속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은퇴 이후의 삶에서 나타나는 평생 유지된 가치 있는 생각과 행동의 지속적인 패턴에 관한 연구를 상기시킨다(Dorfman, 1997, 175). 연구참여자 CM은 자신이 은퇴 전부터 은퇴 이

후의 프로젝트를 준비해왔기 때문이라 말했다.

40년 동안 어떻게 준비했느냐 하는 그거거든요. 저는 이게 하나의 저의 목표였어요. 저는 은퇴한 다음에는 이 책을 쓴다는 그 목표를 먼저 세우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없더라고요. 그게 없으니까 뭘 하느냐 그러면 뭐 그냥 어제 등산도 가고 동생들 만나 식사하고 놀러도 가고 또 손주들 이런 데 가고 뭐 주로 그런 어떤 평범한 은퇴 후의 삶을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더 치열하죠. 저는 뭐 정말 지금도 눈만 뜨면 그거를 위해서…

그는 지난 40년간 해 온 프로젝트, 곧 성경주석 집필을 마무리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기에 은퇴 전 만큼이나 현재도 매일을 “치열”하게 살아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이 은퇴 전부터 시작한 은퇴 이후 삶의 “목표”와 “준비”가 다른 노인들에게는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슴을 뛰게 하고 치열하게 살며 달음질하게 하는 그들을 사로잡은 목표, 텔로스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SM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목표가 생겼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목표가 아니고 죽을 때 그리고 죽은 이후에 영원까지 이르는 목표”가 생겼다는 것이며 그는 그것이 축복이라 말했다. 그렇기에 그는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다고 말했다.

내가 스스로 그들과 무슨 차이가 있나 물으면 나는 지금도 가슴이 설레요. 가슴이 뛰고 은퇴 후에 할, 은퇴를 조금 빨리 하고 싶은 것이 은퇴 후에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냥 가슴이 뛰어. […] 이 삶이 나이 들어가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것도 할 수 있고.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몇 가지 안 해도 그것이 가지는 그 풍성한 의미. 예를 들어서 내 버킷리스트 중에 아이들을 위한 성경, 그거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가슴이 설레지. 그런 일 몇 개만 하고 죽어도 돼.

연구참여자 SM의 은퇴 후 계획은 “증손주와 고손주 세대”가 읽으며 예수님의 복음을 가슴에 새기게 될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북”을 만들고, 그들을 위한 사역자들과 교회를 준비하는 일이었다. 그가 가진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한 소명은 그가 교수직과 목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은퇴를 한다고 해도 계속될 부르심이요, 사명이었다.

물론, 연구참여자들도 노년기를 지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여행과 음악이나 미술 감상이나 전시 등 누리지 못했던 여가생활을 해보고 싶은 소망도 있었으나(PF, CM), 그것은 그들의 은퇴 후 삶의 일부일 뿐 더 큰 소망은 은사에 불을 지피 더 쓰임 받고 싶고(PF), 치열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평생의 집필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CM), 다음 세대와 그들을 위한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 책을 쓰고 영상을 제작하며(SM), 영성과 건강과 실력을 끊임없이

같고 닦아 시니어 선교사로서도 은퇴와 상관없이 전도하고 사역자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AM)이었다. 이는 물론 그들이 평생 학자와 가르치는 자로 살았던 습관, 전문성, 사회적 기반이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능하게 했다가나 이전 노인세대보다 높아진 건강과 교육의 수준 때문이라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영원한 기업이라는 영원한 목표와 텔로스가 그들의 상상력과 실천을 사로잡았기 때문은 아닐까?

3. 교회의 시니어 사역

앞서 기술한 연구참여자의 목소리를 통해 느꼈듯, 이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의미 있는 일, 미완성된 과제,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은사, 경험, 지혜, 전문성을 사용하여 헌신해야 할 소명과 삶이 여전히 그들 앞에 놓여 있다고 느꼈다. 그렇다면 이들은 교회의 시니어 사역에 대해 무엇을 제안할까?

1) 죽음을 앞둔 퇴물과 끈대 아닌 시니어의 진정한 가치 인정하기

연구참여자들은 사회문화적·교회의 세대 공동체적 맥락 안에서 시니어 사역을 이야기한다. 그렇기에 다른 세대와의 관계 속에서 노인이 어떻게 인식되는지가 중요하다. 연구참여자들은 물론 그들은 노년기에 건강, 외로움, 사회 변화에의 적응, 경제적 문제가 있고, 노인들 안에 ‘보상받고 싶은 심리’, ‘삶에 대한 집착’, ‘끈대와 같은 태도’, ‘폐습’ 등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것은 노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만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RM은 그런 특성은 아마도 젊어서부터 “단단한 영혼의 심지”를 만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노인들 스스로가 끈대가 아닌 “언제든지 젊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고” “무등을 태워서 나를 짊고 넘어가라” 하며, “윗세대가 자기를 희생하고 밑알의 역할을 해서 썩어서 후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참 노년을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라고 했다. “대접받고 싶어서 끈대”가 되는 어른이 생기지 않도록 연륜이 깊은 노인들에게 편견 없이 다가가 자주 묻고 대답을 끌어내고 이야기를 나누고 무엇을 해 달라고 조르라고 젊은이들을 초청한다.

젊음과 새것을 존중하는 오늘날 문화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노인의 존재와 지혜가 오래 되었기에 낡고 가치가 없다고 간주하는 것 역시 그릇되었다고 지적한다. SM은 “우리 사회는 ‘old’ 하면 낡은 것, 낡아서 젊은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노인들이 평생 시간과 돈과 인생의 경쟁으로 만들어온 것들의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하며 “자원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렇기에 RM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과 그 사람들 내면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찾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공부

하듯이,” 노인들의 삶과 그 삶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을 공부하고 소통할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도 노인세대의 삶과 지혜 그리고 그들의 현존은 가치가 있다. 연구 참여자 SM은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3대”가 꼭 필요하며, 세대통합적인 사역과 어르신들이 함께 예배하는 모습은 손주 세대에게 큰 도전과 격려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사회의 가정 붕괴와 핵가족화를 대체하고 보완하는 안정감”을 다음 세대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도 교회 안에 혈연관계를 넘어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외삼촌”이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를 넘어 더 넓은 사회에서도 오늘날 노인세대는 “6.25도 거쳤고 혁명도 거쳤고 경제 발전도 거친 기여자들”이며,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적극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BM은 말했다.

물론 노인이 가진 삶에 대한 지나친 애착은 문제가 되며(BM, RM, SM), 믿음은 본향에 대한 소망을 포함하나, 그럼에도 노인을 “얼마 있으면 죽을 사람”이나 “죽음을 앞둔 사람”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RM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죽음에 더 가깝다”는 생각은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주장했다. 젊은이들에게 “handicap”이 있듯이 노인들도 “노년이라는 일종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 누가 더 죽음에 가깝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노인을 “퇴물”로 간주하기 보다는 기도와 섬김의 기회를 통해 “자기 존재,” “가치,”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TF). 또한 누군가 핸디캡이 있으면 “보충”해 주고, 요한복음 9장과 같이 장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하듯, 노인과 젊은이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 소통으로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사회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M). 다른 세대와 더불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노인의 역할을 숙고하는 “연령통합적” 관점을 보여준다(김정희, 2018, 211).

2) “영혼을 깨우기” 위해 상시로 긴박하게 진행되는 시니어 사역

연구참여자들은 시니어 사역은 무엇보다도 노인의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사역이라고 강조한다. 그렇기에 다음 세대 사역만큼이나 중요하며, 자녀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대면뿐 아니라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매일의 일상에 찾아가는 사역이라고 보았다.

첫째로, 노인 사역은 노인의 “영혼을 깨우는” 사역이다. 현재 교회에서 시니어 주일학교를 설립하여 3년째 섬기고 있는 연구참여자 TF는 “마지막 정리하는 종착역에 온 사람들을 어떻게 그 영혼을 살릴 것인가? 깨울 것인가? 평생 믿은 것이 잘못된 것도 많거든”이라며 시니어 사역의 긴박성과 중요성을 느꼈다. 그러나 시니어 모임의 실상은 그와 거리가 있다고 했다.

수요일날 모여서 점심 먹고 막 노래 공부도 하고 뭐 많이 해서 참 즐겁게 행복하게 했어 [...] 그러나 나는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고 봐요. 영혼을 굶어야 돼. 깨워야 돼, 흔들어서. 모이면 앉아서 누구네가 몇 평이고 아들네 아파트가 몇 평이고 자동차를 뭐로 바꾸고 있다고 이야기들 하고 있어. 이 건 아니야. 그리고 어떤 노인은 눈 뜨자마자 TV 켜놓고 하루 종일 보는 그 사람들 영혼 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나 있겠냐. 그래서 노인들한테 중요한 것은 영혼을 깨우는 일이에요. 한평생 예수를 믿어도 전혀 아닌 게 많아.

시니어 사역이라 하면 ‘인간적인 육신적인 즐거움, 기쁨을 주고 율동과 그림그리기 활동’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TF는 정말 중요한 사역은 영혼을 깨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평생 예수를 믿어도 잘못된 신앙일 경우도 많고, 상대적으로 많은 여가시간을 TV를 보는 것으로 소일하는 노인이 많다. 교회에서 함께 모였을 때 자녀와 소유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을 보낸다. 노인의 영혼을 깨우고 진리에 옳게 선 신앙을 가지도록 돕는 사역이 TF가 말하는 “국가가 못하고 자식들이 못하는” 교회의 시니어 사역의 성격이어야 했다.

20년 가까이 아홉 개 교회에서 시니어 부서를 개척하는 사역을 한 BM은 어르신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건강에 대한 교육, 핸드폰 문자 보내기, 카카오톡 활용, 은행 가지 않고 송금하기, 변화하는 사회 적응을 돕는 교육, 교제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정성스레 준비하여 운영한다. 그러나 그의 사역의 가장 우선순위는 어르신들의 구원이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세례 안 받은 교인은 제가 관리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어르신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구원 얘기를 하면 정말 빨리 받아들일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경우 “하루하루 지내는 데만 급급하여” 구원을 이야기하면 “너도 한번 못 먹어봐라” 하며, 먹고 살기 어려운데 자신과는 무관한 이야기를 하는 듯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까워했다.

둘째로, 시니어 사역은 주중에도 지속되어야 하는 사역이다. TF는 교회는 다음 세대 교육에는 관심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노인에게는 무심하다고 말했다. “어린이 주일학교를 위해서는 교회에서 굉장히 신경 쓴다. 그러나 노인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교회에서 좀 신경을 써야 돼. 제쳐 놓잖아.” 그는 노년부 주일학교를 개척하여 코로나 19 기간 동안 비대면으로 운영해왔다. 대면 강의보다 더 많은 수고를 요하지만, 비대면으로 SNS를 활용해 교리교육을 진행했다. 교재를 사서 우편으로 보낸 후 월요일에는 본문을 읽고, 화요일에는 본문 배경에 관한 읽기 자료를 보내고, 수요일에는 그 성경구절을 쓰며 암송하고, 목요일에는 교리와 요약된 설명을 읽도록 하고, 금요일에는 복습문제 풀며 삶의 적용을 돕는 일련의 과제를 하는 등 매일 새벽마다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한편 연구참여자 PF는 어머니와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천국 가는 길을 배움하는”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교회도 가족과 동일하게 노인 성도들을 “그냥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게 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배움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을 사로잡고 있는 삶에 대한 애착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BM)이 있다면, 성도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죽음을 거쳐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여 영생을 누리기” 위한 이 싸움은 “혼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해나가는 선한 싸움”이며 교회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TF).

셋째로, 주일뿐 아니라 노인의 일상을 돌보는 사역을 위해서는 비대면·온라인 사역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자녀들과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로 TF는 노인들이 매일 새벽 자신이 보내주는 SNS 메시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다섯 시에 일어나서 카톡 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야.” 물론 코로나 19 상황이었기 때문에 촉발되었다 할 수 있지만, 비대면과 온라인을 통한 교육과 목양은 시니어를 위해서도 계속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면으로 일주일에 한번 열리는 목요 중보기도회를 매일 하는 비대면 기도시간으로 전환할 것을 사역자에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노인네들 교회도 못 나오는데 교회 나와서 중보기도 하는 건 무리다. 집에서 하게 하자. 그 대신 매일 하루 한 시간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한 시간이든 십 분이든 ‘매일 한번 일십’으로 기도하는 “111 시니어 기도팀”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코로나 이후에도 춥고, 비가 오면 이동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온라인·비대면 방식은 여전히 효과적일 것이라 보았다.

이러한 시니어 사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SNS를 통한 매일의 시니어 주일학교 교육을 진행하면서 곤란한 점은 ‘카톡’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있다는 점이다. TF는 말했다. “지각이 있는 자녀들은 어머니가 카톡을 사용하도록 해드려. 카톡 못하면 자꾸 가르치고.” 가능하다면, 핸드폰도 좋은 것으로 교체해 드리고, “태블릿이나 아이패드를 사가지고 큰 글씨로 보게” 해드리면 더 좋겠지만, 안 된다면 교회에서라도 구입해 드리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세대통합적 접근은 늘 강조된다. RM은 자신이 학생들로부터 경험하는 “역멘토링”, 곧 젊은 세대에 의한 노인세대 멘토링을 제안하기도 했다. 물론 대면 사역도 필요하다. 연구참여자 PF는 노인들이 교회로 찾아오도록 기다릴 것이 아니라 “100세 시대”의 시니어 사역은 이제 찾아가는 노인목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배’든 ‘놀이’든 특별프로그램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그룹을 파송하여 목양해야지 “모여라” 식의 사역은 특히 초고령 노인들에게는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중요한 점은 교회와 자녀세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인의 일상과 삶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V. 나가는 말

공동체 내 노인의 위상과 가치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그 사회가 얼마나 인도적인 사회인가를 보여주는 테스트와 같다고 Tournier는 말한다(1971, 123). Zock은 Erikson의 글을 인용하여 노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젊은이는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2018, 448). 연구에 참여한 기독교인 시니어들의 신앙과 삶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와 교회가 그러한 사회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해 주었다.

신앙과 관련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점이 많았고, 특히, 김성원(2022) 연구의 참여자들이 보여준 신앙의 특징과 연속성 속에 있었다. 무엇보다도 연구참여자들의 신앙과 삶은 구원과 사명으로의 부르심뿐 아니라 자신의 약함과 실패를 포함하는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에 대한 증언과 감사, 돌아갈 본향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고백은 중생과 양자됨, 죄 용서, 성화뿐 아니라 Berkhof가 아래와 같이 예시했던 은혜 언약의 풍성한 축복에 대한 증언이라 할 수 있었다(Berkhof & Van Til, 1989).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으며, 순경과 역경의 때를 위한 약속이 있고, 삶과 죽음에 대한 약속이 있다. 힘을 잃은 사람을 위한 용기와 피곤한 사람을 위한 안식의 약속이 있다. 삶을 헤쳐 나가는 길잡이와 유혹으로부터의 구원의 약속이 있으며, 영원한 도움의 손길과 환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하게 하는 약속이 있으며, 광풍에 요동하는 영혼을 위한 안심의 약속과 또한 피곤한 순례자를 위한 영원한 본향의 약속이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한 신앙은 그 안에서 성공과 실패를 해석하게 하고 죄와 약함을 인정하며 감사와 자족감을 누리므로 일종의 자아통합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McCellan, 1989, 26).

신앙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다른 연구결과는 참된 신앙은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기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야고보서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을 대조한 것과 같으며, 베드로전서에서 성도들이 선한 행실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고난받음으로 인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는 권면, 그리고 요한일서의 “나타남”의 신학과 유사하다(채영삼, 2020).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마지막 때에 아들이 마귀와 죽음과 어둠이 잠시 동안 왕 노릇 하는 세상에 나타나셨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자기 백성을 구속하셨다. 구속함을 받은 백성은 마땅히 형제를 사랑함

으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주와 복음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가야 함을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 보여주었다.

박사학위를 소지한 기독교인 시니어들에게 배움과 학문으로의 부르심은 Kuyper가 자유 대학의 학생들에게 말했듯, 특권이였다. 그는 학문으로의 부르심(call to scholarship)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환경이 척박하여 의식주의 문제로 씨름하며 살 수밖에 없기에 소수만이 누리는 “영광과 특권”이며 “신성한 기쁨”의 소명이라고 보았다(Kuyper, 2014, 104). 그렇기에 이 부름을 받은 자들은 선택해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피조세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로고스를 반영하여 마을과 도시에 빛을 발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했다(2014, 100-104). 연구참여자들에게서도 이 특권에 대한 감사와 학문을 통해 얻은 전문성과 지위를 하나님과 사회와 교회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잘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연구결과 중 하나는 은퇴 이후 연구참여자들의 삶이다. 이들의 은퇴 이후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 다음 세대에 유익을 끼치기 위한 일로 여전히 채워져 있었다. 물론 이는 아카데미아에서 은퇴한 집단의 삶을 연구한 Dorfman(199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고등교육기관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은퇴 전에 하던 일 중 자신이 가장 잘하거나 좋아하던 일(연구, 교수, 저술 등)을 부분적으로 계속하고, 은퇴 전 소속 학교와 관계해서 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전공을 활용해 지역사회나 다른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Dorfman의 연구에 참여했던 은퇴교수가 은퇴 이후에도 계속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을 아예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 같이, 이들은 자기의 소명에서 가치와 흥미를 발견했다(120). 또한 은퇴 이전에 정신적인 일과 시간을 아껴 책이나 논문 작성과 같이 생산적인 일에 평생을 쏟으며 몸에 밴 습관은 은퇴 이후의 삶의 패턴에서도 지속되었다. Dorfman의 연구가 말해주듯, 사람들은 은퇴 전의 자기를 데리고서 은퇴 이후의 삶에 들어간다(106). 그렇기에 노년기를 위한 준비는 노년이 되기 전에 이루어진다. 은퇴 전에 신체적·정신적·정서적·영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고자 애써왔다면 은퇴 이후에도 마땅히 되어야 할 그러한 모습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다듬어 갈 수 있다(Dorfman, 170).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이 보였던 노년에도 부르신 일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과업에 가슴 뛰고 이를 위해 자신을 절제하며 달음질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교수라는 직종에서 은퇴한 모든 이들의 경험으로만 일반화할 수 없다. 구원과 하나님의 선물에 빛진 삶, 다음 세대와 열방에 전할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텔로스가 그들의 상상력과 일상을 사로잡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은퇴할 수 없는 영원한 목표와 소명을 주기 때문이다(Smith, 2013).

다른 한편으로 일부 연구참여자들의 은퇴 이후의 일과 역할은 Tournier가 말한 “제2의

이력(a second career)”과 유사했다. Tournier(1971)에 의하면 제2의 이력은 삶에 목적과 의미를 주는 일이며, 개인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이며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생산적인 일이다. 직업이 위계질서나 체계 내에서 지휘하고 명령하거나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었다면, 제2의 이력은 힘을 발휘하기보다는 젊은 세대를 자문하고 지원하며, 시간, 사례, 지위로부터 자유로운 일이다. 직업보다 더 개성과 흥미, 세상에 대한 특정한 텔로스에 의해 기울어진 존재로서의 한 개인의 관심 및 성향과 깊이 관련 있는 일이다(122-153). Tournier는 이 제2의 이력은 한 사람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삶의 시기에 씨가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처음에는 느슨하게 성장하다가 은퇴기에 완숙한 열매를 맺는 식물과 같다고 비유했다(125).

이러한 제2의 이력은 연구참여자들과 같이 전문직에 종사한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노인들에게도 필요하다. 전자가 은퇴 전에 관심을 갖고 씨를 뿌려놓았던 일 중 일부를 은퇴 후에 자유롭게 수행하며 열매를 맺어가듯, 다른 노인들의 은퇴 이후의 삶도 TV 시청과 단순한 여가만으로 채워지거나 청춘의 연장과 소비주의의 문화적 극본에 동화된 삶이 아니라(정진웅, 2011), 목적과 의미, 충족감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노년이 되기 전에 다양한 관심을 개발하고 가치 있는 일과 네트워크에 참여하며 특정한 아비투스(ability)를 형성하고 제2의 이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일은 Erikson과 Fowler가 강조하는 성인됨의 이상적인 측면, 계속되는 세대의 순환 속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생산성(generativity)과 돌봄, 개인과 기관과 사회를 위해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는 소명과 떼어 놓을 수 없다(Fowler, 2000, 37).

Comenius(1996)가 “노년은 아직 무덤이 아니며, 각자의 일을 완전히 멈춘 것이 아니라”라고 한 말은 연구참여자들의 삶을 잘 묘사해주었다(435). 교회의 시니어 사역은 무엇보다도 영혼을 깨우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이 말하는 영혼을 깨우는 사역은 세상에 대한 애착과 자랑, 의미 없는 한담, 기분전환이 아닌 일상이 된 여가, 평생 믿었지만 잘못된 신앙 혹은 둔해질 수 있는 영적 상태로부터 노인의 영혼을 매일 매주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의 격려로 도전하고 깨우는 것이다. Comenius(1996)의 제안처럼 연구참여자들이 마지막까지 경건과 도덕성과 지성 중 한 오라기도 놓치지 않으려고 긴장감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다면, 다른 노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이어야 한다. 시니어 사역은 단지 교제나 여가를 위한 프로그램일 수 없다. 노인 성도가 선한 싸움과 달려가야 할 경주를 잘 마치고 죽음을 지나 영원한 나라와 생명의 면류관을 상속하도록 돕는 사역이어야 했다.

영혼을 깨우는 사역이기에 시니어 사역은 다음 세대 사역만큼이나 중요하며 교회와 다음 세대의 관심을 요한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적합한 좋은 신앙프로그램과 활동이 있는 교회를 찾아 그들을 데리고 가셨듯이, 부모님이 노년이 되면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던 Hanson(2010)의 말을 상기시켜준다. 시니어 사역이 반드시

시니어 부서 운영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그들의 영혼을 깨우며,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 주며, 말씀과 교리를 통한 여호와 경외와 참된 경건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돕고, 복음 안에서 인생을 돌아보고 자족하게 하며, 죽음을 지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데 이르도록 돕는 데는 의도적인 교육과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박은혜, 2021; 유은희, 2016). 한 연구참여자가 말했던 시니어 주일학교의 SNS를 활용한 매일의 비대면 교리공부와 기도회는 시니어 교육에 있어서 테크놀로지와 SNS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학자들이 제안했던 노인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도울 필요성도 확인해주었다(김정준, 2017; 김정희·박은혜, 2021).

교수는 젊은이들과 늘 함께 하는 직종이지만 은퇴 이후에도 일어나는 젊은 세대와의 교류는 연구참여자들을 삶을 풍성하게 했고, 한 연구참여자는 은퇴 후 제자와의 만남을 “역멘토링” 경험으로 표현하기도 했다(Creps, 2008). 다른 노인들의 신앙과 삶에도 여러 세대와의 만남과 배움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꼰대” 문화와 같은 언어와 문화적 극본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상상력과 문화가 필요하며, 교회의 연령통합 혹은 세대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그러한 접근은 Allen과 Ross가 주장하듯, 모든 세대가 어우러진 신앙공동체가 줄 수 있는 소속감, 핵가족과 역기능 가족을 위한 지지, 성품의 성화, 그리고 각 세대가 기여하는 자원의 부요함과 그것을 효과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제공 등 여러 면에서 큰 유익을 줄 것이다(Allen & Ross, 2012, 47-63).

참 고 문 헌

- 강동훈 (2020). 종교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5), 212-221.
- [Kang, D. H.(2020). Effect of religion on the satisfaction of the elderly's lif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5), 212-221.]
- 강성봉·조성숙 (2013). 노인의 종교활동과 신앙태도가 우울 및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0), 325-346.
- [Kang, S. B., & Cho, S. S. (2013). Effects of religious activities and faith attitudes on depression and ego-integrity of the elderl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10), 325-346.]
- 강창동 (2008). 한국의 편집증적 교육열과 신분 욕망에 대한 사회사적 고찰. **한국교육학연구**, 14(2), 5-32.
- [Kang, C. D. (2008). A social historical study on the Korean paranoid educational fever and status desire.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14(2), 5-32.]
- 거창고등학교. 교육목표. http://geochang-h.gne.go.kr/geochang-h/cm/cntnts/cntnts_View.do?mi=115303&cntntsId=8744에서 인출.
- [Geochang High School. Educational objectives. retrieved from <http://geochang-h.gne.go.kr/geochang-h/cm/cntnts/cntntsView.do?mi=115303&cntntsId=8744>]
- 김삼숙 (2010).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주기적 여가활동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m, S. S. (2010). A study of Korean elderly's contemporary life style and regular basis participation rate of leisure activitie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김성원 (2022). 노인의 신앙 체험 및 의미에 관한 질적연구. **기독교교육정보**, 72, 87-122.
- [Kim, S. W. (2022). A qualitative study of senior adult's experience and meaning of faith. *Christian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72, 87-122.]
- 김수영 (2021). 노년기 자아통합감 형성을 돕는 기독교 가족의 일상사례 연구. **ACTS 신학저널**, 50, 476-507.
- [Kim, S. Y. (2021). A study on daily rituals of Christian families to develop the formation of ego-integrity in old age. *ACTS Theological Journal*, 50, 476-507.]
- 김성호 (2019). 고령사회 속 기독교 노인복지의 화두: '안티 에이징과 웰 에이징'을 대하는 기독교 윤리적 시선. **기독교사회윤리**, 43, 9-37.
- [Kim, S. H. (2019). The issue of Christian elderly welfare in aged society: Christian ethical perspective on "anti-aging and well-aging". *The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ocial Ethics*, 43, 9-37.]
- 김장은 (2013). **브라보 실버**.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 [Kim, J. E. (2013). *Bravo silver*. Seoul: Yeyoung Communication.]
- 김정준 (2017). 21세기 한국 사회와 노인 목회의 새로운 과제와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50, 155-199.
- [Kim, J. J. (2017). Korean Society in the 21th Century and New Tasks and Directions for pastoral Care for Older Generation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0, 155-199.]
- 김정희 (2018).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한국교회 대응방안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56, 209-239
- [Kim, J. H. (2018). Studies on How Korean Churches Meet the Challenges of an Aged Societ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6, 155-199.]
- 김정희·박은혜 (2021). 코로나 시대 기독교 노인의 신앙생활을 위한 교육목회 방안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66, 243-272.
- [Kim, J. H., & Park, E. H. (2021). A study on the method of educational ministry for the religious life of the Christian elders during the Corona period.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6, 243-272.]
- 김철영 (2011). **실버목회 성공전략**. 서울: 북지인.

- [Kim, C. Y.(2011). *Silver ministry success strategy*. Seongnam: Bookjiin.]
- 남미자·배정현·오수경 (2019). 교육열, 능력주의 그리고 교육 공정성 담론의 재고: 드라마 “SKY 캐슬”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9(2), 131-167.
- [Nam, M. J., Bae, J. H., & Oh, S. K. (2019). Reconsideration of educational fever, meritocracy, and educational fairness: focusing on the discourse analysis of drama “SKY castle”.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9(2), 131-167.]
- 남인숙 (2011). 학력사회와 한국교육의 모순. **사회이론**, 40, 101-127.
- [Nam, I. S. (2011). Contradictions of Korean education based on academic success. *Social Theory*, 40, 101-127]
- 대학교육연구소. 1945~2013년 외국박사학위 연도별 취득자 수. <http://khei.re.kr/post/2099>에서 인출.
- [Korean Hig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Number of foreign doctoral degree holders by year from 1945~2013. retrieved from <http://khei.re.kr/post/2099>]
- 박군석 (2009). 은퇴 노인의 주관안녕과 신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은퇴전 직종에 따른 종단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5(2), 292-318.
- [Park, K. S. (2009). Psycho-social determinants of subjective well-being and physical health of a retired elders in Korea. *Korean Psychological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15(20), 292-318.]
- 박아청 (2010). **에릭슨의 인간이해**. 파주: 교육과학사.
- [Park, A. C. (2010). *Erikson's understanding of humanity*. Paju: Kyoyookbook.]
- 박은혜 (2021). 노인의 종교적 성숙을 위한 교회교육 방안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67, 77-116.
- [Park, E. H. (2021). A study on the method of Church education for the elderly's religious maturit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7, 77-116.]
- 샘물학교. <http://www.smcs.or.kr/>에서 인출.
- [Saem-mool Christian School. Retrieved from <http://www.smcs.or.kr/>]
- 설은주 (2005). **고령화 시대의 노인 목회**.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 [Seol, E. J. (2005). *Elderly pastoral care in an aging society*. Seoul: Yeyoung Communication.]
- 유은희 (2016). 연령주의와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교회교육에 관한 제언. **기독교교육정보**, 51, 121-161.
- [Yoo, E. H. (2016). Ageism and educational ministry for Babyboomers in the church. *Journal for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51, 121-161.]
- 이광호 (2000). 기독교 학문의 참된 기능. **진리와 학문의 세계**, 3, 7-10.
- [Lee, K. H. (2000). The true function of Christian learning. *World of Truth and Learning*, 3, 7-10.]
- 이은성 (2016). 고령화 한국사회와 교회 노인교육의 복지적 접근 및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47, 161-188.
- [Lee, E. S.(2016). Aging Korean society and a welfare approach to church senior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7, 161-188.]
- 이정관 (2014). 100세 시대의 노인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돌봄의 과제. **신학과 실천**, 39, 389-411.
- [Lee, J. G. (2014). Caring for the Christian education needs of the elderly. *Theology and Practice*, 39, 389-411.]
- 임선경·김명찬 (2021). 중년여성의 학력콤플렉스 극복경험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4), 283-299.
- [Lim, S. K., & Kim, M. C. (2021). An auto-ethnography on the middle-aged woman's experience in overcoming academic complex.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4), 283-299.]
- 정진웅 (2011). 새로운 노년 상상하기. 플랫폼, 30. http://platform.ifac.or.kr/webzine/view.php?cat=&sq=885&page=1&Q=w_no&S=30&sort=에서 인출.
- [Chung, G. W. (2011). Imagine a new late adulthood. Asia Culture Review Platform 30. Retrieved from http://platform.ifac.or.kr/webzine/view.php?cat=&sq=885&page=1&Q=w_no&S=30&sort=]

- 조무성 (1989). 기독교 문화형성: 기독교 학문, 직업 공동체를 중심으로. **통합연구**, 2(3), 127-136.
- [Cho, S. M. (1989). Christian culture formation: Focusing on Christian academic, professional communities. *Journal of Integrative Studies*, 2(3), 127-136.]
- 조승미 (2009. 11. 13). "엘리트보다는 사람이 되어라" 펄낸 전해성 박사. 여성신문.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66>에서 인출.
- [Cho, S. M. (2009. 11. 13). Dr. Jeon Hye-sung publishes "Be a Person rather than an Elite". Women News. retrieved from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66>]
- 조은하 (2019). 활기찬 노년기를 위한 교육생태학적 관점의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59, 275-304.
- [Cho, E. H. (2019). Christian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educational ecology for a lively old ag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9, 275-304.]
- 채영삼 (2020). 요한일서의 $\phi\alpha\nu\epsilon\rho$ -용어 사용과 '나타남'의 신학적 의미. **신약논단**, 27, 499-546.
- [Chae, Y. S. (2020). 1 Johns Use of $\phi\alpha\nu\epsilon\rho$ -terms and its theological implications. *Korean New Testament Studies*, 27, 499-546.]
- 통계청 (2021). 고령자 통계.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403253
- [Statistics Korea (2021). Statistics of the Elderly. Retrieved from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403253]
- 한동대학교. 한동 비전선언문. <https://www.handong.edu/about/vision/declar/>에서 인출.
- [Handong University. Vision. retrieved from <https://www.handong.edu/about/vision/declar/>]
- KBS 공부하는 인간 제작팀 (2013). **공부하는 인간**. 고양: 위즈덤하우스.
- [KBS "Studying Human" Production Team (2013). *Homo academicus*. Goyang: Wisdomhouse.]
- Allen, C. A., & Ross, C. L. (2012). *Intergenerational Christian formation*.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 Berkhof, L., & Van Til, C. (1989). *Foundations of Christian education*. Phillipsburg, NJ: P & R Publishing.
- Bogdan, R., & Bilen, S. K. (2006).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ies and methods* (5th Ed.). Boston, MA: Pearson
- Comenius, J. A. (1996). **범교육학**. 경일용 역. 서울: 여수문.
- [Comenius, J. A. (1996). *Pampaedia*. Translated by Chung, I. U. Seoul: Jeshurun.]
- Creps, E. (2008). *Reverse mentoring*.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Dorfman, L. T. (1997). *The Sun still shone: professors talk about retirement*. Iowa City, IA: University of Iowa Press.
- Fillinger, R. E. (1993). Teaching older adults. In K. O. Gangel & J. C. Wilhoit(Eds.), *The Christian educator's handbook on adult education* (pp. 223-233). Grand Rapids, MI: Baker Books.
- Fowler, J. W. (1981). *Stages of faith*. San Francisco, CA: Harper & Row, Publishers.
- Fowler, J. W. (2000). *Becoming adult, becoming Christia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Gallagher, D. (2006). *Senior adult ministry in the 21st century: Step-by-step strategies for reaching people over 50*. Eugene, OR: Wipf and Stock.
- Hanson, A. (2010). *Baby boomers and beyon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Hay, D., & Nye, R. (2011). **어린이의 영적 세계의 탐구**. 유명복 역. 서울: 도서출판 대서.
- [Hay, D., & Nye, R. (2011). *The spirit of the child*. Translated by Yoo, M. B. Seoul: Daiseo.]
- Kuyper, A. (2014). *Scholarship: Two convocation Addresses on university life*. Grand Rapids, MI: Christian's Library Press.
- McCellan, A. (1989). What my pastor needs to know about me, *Southwestern Journal of Theology*, 31(3), 22-30.
- Merriam, S. B., & Grenier, R. S. (2019). *Qualitative research in practice*(2nd 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Smith, J. K. A. (2013). *Imagining the kingdom*.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Tournier, P. (1971). *Learn to grow old*.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Willimon, W. (2020). *Aging: Growing old in church*.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Zock, H. (2018). Human development and pastoral care in a postmodern age: Donald Capps, Erik H. Erikson, and beyond.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57, 437-450.